

1. 오가신잔 전승관: 공연, 시작 인사(1)

오늘 오가신잔 전승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잔 지방의 나마하계를 실제로 보시기 전에 나마하계가 무엇인지 안내원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무형민속문화재(1978 년에 등록) 및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2018 년에 등록)으로 널리 알려진 나마하계는 오가 산신들의 사자 또는 신들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달 그믐날 밤에 인근 마을의 집을 한 채씩 돌며 액운과 재앙, 불순한 것을 쫓아내고 풍년 또는 풍어의 기운을 나누며 오는 해의 건강과 가내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 온 현지 의식을 통해 게으름뱅이와 떼쟁이에게 벌을 줍니다.

나마하계라는 말은 나모미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모미는 오가 지방의 방언으로, 손이나 발을 장시간 열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하는 저온 화상 흔적인 ‘온열성 홍반’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화로 근처에서 보내는 게으른 자에게 **화상 흔적(나모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들통나게 되는 이 화상 흔적(나모미)을 제거(일본어로는 벗겨 낸다는 뜻의 ‘하기토루’)한다는 뜻의 나모미하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머지않아 나모미하기는 나마하계로 축약되었고, 이 말은 신의 사자 그 자체와 짝게는 19 세기 초부터 오가에서 매년 행해지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나마하계는 역사적으로 새해 첫 보름달을 축하하는 축제인 정월 대보름 밤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태음력에 기반한 음력 1 월 15 일에 해당하며 오늘날에는 2 월 중순경이 됩니다. 일본이 1873 년 양력을 도입한 후부터는 나마하계도 새로운 달력에 맞춰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마하계가 오가의 마을을 12 월 31 일에 방문합니다.

오가에는 약 140 개의 마을이 있지만 그중 90 여 개의 마을에 독자적인 나마하계 전통이 전승되어 왔으며 각각의 외모, 행동, 소지품이 다릅니다. 이곳 신잔의 나마하계는 도구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마을과는 달리 탈에 뿔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나마하계 일행의 인원수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잔에서는 3 인 1 조로 돌아다니는데 2 명은 나마하계, 나머지 1 명은 ‘사키다치’라는 사자 역할을 맡습니다. 사키다치는 일행의 도착을 먼저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가에 도착하면 사키다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나마하계가 들어와도 좋은지 거주자에게 묻습니다. 지난 1 년간 아이가 태어난 집이나 가족이 사망한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마하계의 풍습입니다.